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햄버거 하나로 환율을 읽는다, 빅맥 지수(Big Mac Index)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741/>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같은 햄버거 하나가 나라마다 값이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 돈으로 꽤 비싸게 느껴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놀랄 만큼 싸게 느껴집니다. 맛도 크기도 거의 같은 물건인데 값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그 차이에는 두 나라 돈의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을 재치 있게 숫자로 만든 것이 바로 ‘빅맥 지수(Big Mac Index)’입니다. 빅맥 지수란 쉽게 말해 ‘세계 여러 나라의 빅맥 햄버거 값을 비교해 각 나라 통화가 적절한 환율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매겨져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1986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빅맥 지수가 생겨난 배경부터, 그 바탕이 되는 구매력 평가 이론, 실제 계산 방법, 그리고 이 지수가 가진 한계와 여러 변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햄버거 하나로 환율을 읽는다, 빅맥 지수의 원리와 쓰임 빅맥 지수는 어떻게 생겨났나 빅맥 지수는 처음부터 진지한 분석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 반쯤 농담으로 시작했다1986년 9월 이코노미스트의 기자 팸 우드올(Pam Wo